

Quant / Strategist
변준호

02) 3787-2459

ymaezono@hmcib.com

신용등급 상향은 단기 호재

전일 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했다. IMF 이후 장기적인 등급 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주요 신평사 3시를 기준으로 7번째 등급 상향이 이루어졌다.

S&P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재정 및 통화정책 양호, 대외 지표 개선 등을 상향 이유로 들었다. 국가 신용등급 상향은 대체로 대외 인지도를 개선시키고 대외 안정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로 인해 경험적으로 신용등급 상향은 단기적인 KOSPI 상승 재료로 작용했다. 러프하게 과거 상향 당시의 특징들을 약 1주일~1개월 기간 정도로 살펴 보자.

- (1) 증시는 약 1% 상승
- (2) 원/달러 환율은 약 1% 하락
- (3) 외국인은 00년 이후 소폭 매도 우위, 09년 이후 약 1조원 매수 우위
- (4) 최근으로 올수록 등급 상향에 따른 주가 상승 민감도는 약화

지속적인 상승 재료로서의 의미는 약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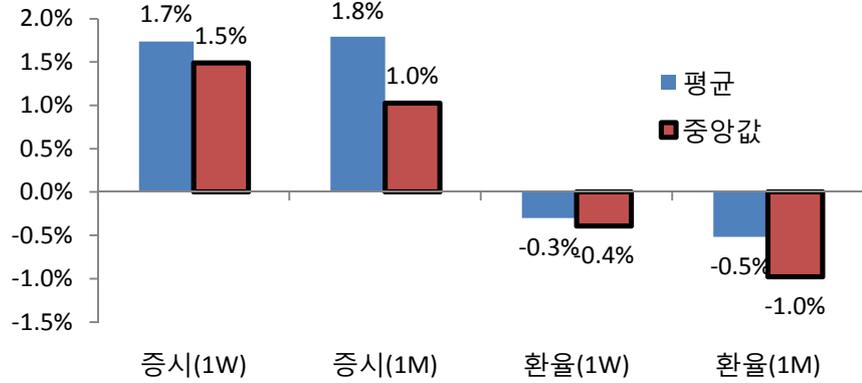
다만, 신용등급의 변동은 주식시장이 선호하는 모멘텀 재료 외에 안정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다는 점과 다소 후행적인 경향 등으로 인해 등급 상향이 추세적 주가 상승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또한 현재 국내 경기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느끼는 체감적 호재로서의 영향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과거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이 예상된다. 금융위기 이후 6번이나 신용등급이 상향됐지만 증시 상승 추세가 지속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점도 이를 반증한다.

주식시장은 2Q 어닝 시즌 외에 또 다른 선물을 받은 셈이나 지속적 상승 재료로서의 설명력은 약하다는 점에서 제한적 단기 호재로서의 의미 부여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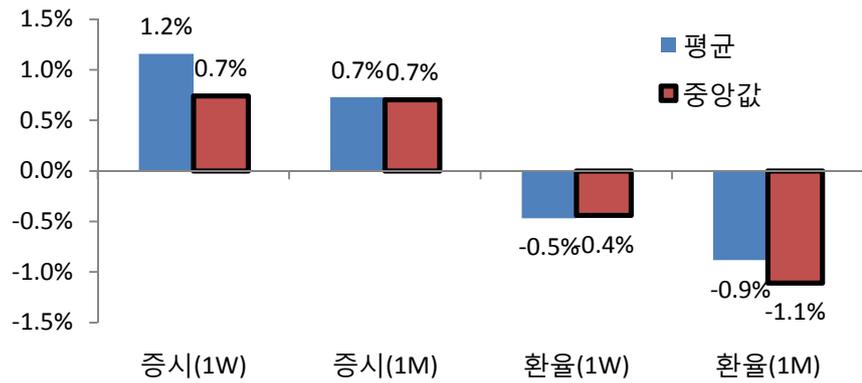
따라서,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단기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판단되나 당시의 기존 박스권 장세 뷰는 유지한다.

<그림1> 00년 이후 신용등급 상향 후 단기 KOSPI 및 원/달러 환율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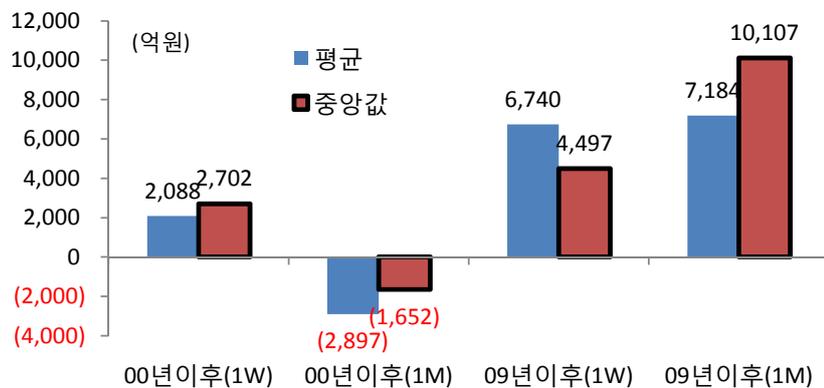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HMC투자증권

<그림2> 09년 이후 신용등급 상향 후 단기 KOSPI 및 원/달러 환율 변동률



자료: 기획재정부, HMC투자증권

<그림3> 신용등급 상향 후 단기 외국인 순매수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HMC투자증권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